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이미숙 · 전지현^{+,*}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Korean and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Mi-Sook Lee · Ji Hyun Jun^{+,*}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7. 1. 18 접수; 2017. 2. 19 수정; 2017. 2. 22 채택)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to analysis the differences on this two variabl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The subjects were 700 Korean and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method was a survey and the measuring instruments consisted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tems, and subjects' demographics attribu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ss tabs analysis, χ^2 test, Cronbach' α , factor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ree factors(body surveillance, body shame, and control belief) were emerged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Korean students showed the higher level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than Chinese students. Second, Korean students had much more experience and a higher intention to perform variou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an Chinese students. Third, body shame and control belief factors had important effect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both country students. However, body surveillance was an important factor on only Korean stud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is study showed that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s an important variable to affec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y cultural environments.

Key Word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객체화 신체의식),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외모관리행동),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한국 여대생),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중국 여대생)

I. 서론

중국은 시장 개방화 이후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4.6% 성장하였고 시장규모는 7.7배 증가하면서, 2015년 중국의 소비판매액은 30조 931억 위안을 기록하였다(KOTRA, 2016). 2015년 Euromonitor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은 전년 대비 각 6.7%와 10.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의류 판매액도 빠르게 급증하여 2019년에는 약 3,300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어패럴 마켓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삼성디자인넷, 2016. 9. 28).

중국의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소비자층은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태어난 80년생(빠링허우 세대), 90년생(지우링허우 세대)과 같은 중국의 신세대들로서, 이들의 소비규모는 매년 14%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35세 이상 소비자 성장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삼성디자인넷, 2016. 7. 22.). 최근 중국의 신세대를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제품 및 다양한 외모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10억 6236만 달러로 2014년의 2배인 53.5%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조선일보, 2016. 6. 9). 또한 201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약 547만 명으로 전체 외래방문객의 47.3%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중국의 20대 신세대 여성들은 한국의 외모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시장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소비자 집단이므로, 이들의 소비자특성과 외모관리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대중 수출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20대 여성이 갖는 소비자특성과 외모관리행동에는 분명 어떤

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외모관련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 소비자 각각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 특성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20대 소비자의 외모관련 소비자특성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객체화 신체의식은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을 전인격적 주체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관찰하고 이용할 객체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전정혜, 유태순, 2011; Kretchmar, 2001; Mackinley & Hyde, 1996; Noll & Fredrickson, 1998).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의식 수준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김완석(2007)은 자본주의는 신체의 자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가치관을 많이 수용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객체화 신체이식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객체화 신체이식에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중국은 남녀 평등 의식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최근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임에 따라 신체의식과 외모태도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중국의 20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이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며, 또한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의 객체화 신체이식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이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두 소비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과 한국 소비자의 특징과 문화적 차이

현재 중국 사회의 20대에 해당하는 90년생(지

우렁허우 세대)은 약 1억 4천만 명으로, 이들은 부모와 양가 조부모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 일명 ‘소황제’로 불리는 대표적인 세대이다. 중국의 20대 소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트렌드를 창조하는 세대로, 높은 학력을 자랑하며 글로벌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고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가정환경이 부유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소비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삼성디자인넷, 2016. 7. 22). 한편, 한국의 20대 소비자는 ‘개인’과 ‘개성’을 대표하는 세대로서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강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면서도 구매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작고 구매나 소비행위 자체를 게임처럼 즐기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7. 2. 8). 또한 인터넷, SNS 등과 함께 자라난 디지털 세대로서 포털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똑똑하게 구매하는 스마트한 소비자이며, 자신만의 관점과 기준 하에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만큼은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리미엄이 있는 차별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을 소유하고 SNS를 통해 이를 과시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삼성디자인넷, 2014. 11. 24).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홍금희(2011)는 체면의식이 강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한 문화권일수록 외모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므로,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과 중국 여대생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 여대생보다 신체수치심이 높다고 하였다. Forbes & Jung(2008)도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은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보다 타인의 외모 기준에 동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여대생의 신체불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으며, 홍금희(2010)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보다 낯선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크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보다 미디어에 대한 압력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한편, 김완석과 유연재(2012)는 동아시아 삼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삼국은 유사한 역사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상업문화의 발달 등을 포함한 국가 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한 비교문화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 객체화 신체 의식

객체화 이론에서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습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객체로 인식하는 자기대상화를 유발하며(Fredrickson & Roberts, 1997), 사회적으로 제시된 이상적인 신체기준을 내면화하고 이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바라봄으로써 자기 가치와 정체성의 근원을 신체적 외모에 두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McConnell, 2001). 신체의 객체화에는 부모나 친구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자본주의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며(김완석, 2007; Harrison & Cantor, 1997),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모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즉 수치심, 불안, 섭식장애와 우울증 등의 부작용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 Sinclair(2006)은 미디어에 의해 제시되는 이상적인 미적 표준은 현실적으로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기준을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McKinley & Hide(1996)는 객체로서 자기 신체를 바라보는 이러한 심리적 경험을 지지하는 개념을 ‘객체화 신체 의식’으로 지정하고, 객체화 신체 의식은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세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신체감시성이란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타인의 시선으로 감시하듯이 바라보는 것으로, 신체감시성이 높으면 이상적인 미적 기준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한다. 신체수치심이란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말하며, 통제신념은 자신의 외모

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신체 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통제신념이 높으면 보다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Mckinley & Hide, 1996).

객체화된 신체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나영(2007)은 한국의 성인 여성을 조사한 결과, 매스미디어에서 전달되는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내면화할수록 신체수치심이 크고 신체감시를 많이 하며 외모통제신념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윤(2007)은 한국 여대생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는 객체화 신체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한국 여성들의 객체화 신체외식 수준 또한 높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완석 외(2009)는 한국, 중국, 일본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모든 객체화 신체외식 요인에서 중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였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개성을 표현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상적인 신체모습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에는 의복 및 액세서리 연출,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의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이 포함된다(Kaiser, 1990). 최근 외모지상주의(Lookism) 가치관이 사회전반에 널리 퍼짐에 따라 외모가 단지 외적인 모습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 성격 등의 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외모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리고 연령층에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영(2012)은 여대생의 외모관리방법 중에서 의복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그 다음이 메이크업이었고, 헤어관리행동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여대생들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체형으로 왜곡하여 다양한 체중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 2011). 조혜란과

최종명(2007)은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수행한 외모관리행동은 화장,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의 순이라고 하였고, 박주현(2010)은 체형관리를 가장 많이 시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피부, 헤어, 화장, 성형의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전경란과 이명희(2002)는 신체만족도가 낮고 성취와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이 성형관리행동에 적극적이라고 하였으며, 서란숙(2012)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와 몸매관리가 외모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여대생들은 자신이 이상적인 외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각함으로써 성형수술을 선호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왕야와 김용숙(2007)은 중국 신세대 여대생의 가장 중요한 외모관리 동기는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외모관리행동에서는 피부관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식사통제, 손발톱 및 헤어관리, 정체성 도구착용이었으며, 전반적인 점수를 살펴볼 때 중국 여학생은 한국 여대생들에 비해 외모관리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척립(2004)은 중국의 신세대의 외모관리행동을 조사한 결과, 퍼스널컬러, 패션코디네이션 등 의복관리행동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품과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성형관련행동은 중간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다.

4. 객체화 신체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성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미적기준을 내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객체화 신체외식은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여 진다.

객체화 신체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현진과 정명선(2011)은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은 체중 및 헤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외모통제신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체수치심이 신체감시성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전정혜와 유태순(2011)은 객체화 신체 의식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적 자의의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 신체 의식의 세 변인 중에서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안나영(2007)의 연구에서도 객체화 신체 의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신체 수치심, 신체감시성, 외모통제신념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임보형(2009)은 여성 청소년은 신체 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으나 통제신념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윤(2007)은 18~29세의 남녀를 조사한 결과, 객체화 신체 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크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 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두 소비자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 의식 구성차원을 알아보고, 객체화 신체 의식 수준을 비교분석해본다.

둘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을 비교분석해본다.

셋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해본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 700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여대생은 대전과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446명이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266명(59.6%), 자연계열이 111명(24.9%), 예체능계열이 67명(14.9%)이었고, 한달 용돈은 20~30만원(36.6%)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40만원(27.1%), 20만원 미만(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대생은 대전과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254명이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 거주기간은 1년 미만(79명, 31.1%)과 2~3년 미만(91명, 35.9%)이 많았고, 한 달 용돈은 30~40만원(28.7%)과 20~30만원(24.0%)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조사방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객체화 신체 의식, 외모관리행동,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객체화 신체 의식 측정문항은 김완석 외(2007)의 한국판 객체화 신체 의식 척도(K-OBCS)를 토대로 18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는 .66~.81이었다. 외모관리행동 측정문항은 선행연구(안나영, 2007; 왕야, 김용숙, 2007; 이경숙, 2007)를 토대로 패션, 메이크업, 피부, 헤어, 체중, 성형관리에 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행경험과 앞으로의 수행의도를 질문하였고, 신뢰도는 .94였다. 객체화 신체 의식 측정문항과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에 대한 문항은 5점의 Likert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다. 한편,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는 전공계열, 한 달 용돈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작성한 후 의류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문항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한편, 중국어용 설문지는 중국어를 전공한 한국인이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전공한 중국인이 번역하도록 하여, 두 언어로 작성된 설문지의 내

〈표 1〉 객체화 신체의식의 구성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계수
신체 감시성	· 나는 내 외모보다 신체 상태를 더 많이 생각한다.*	.73	21.14 (21.14)	.81
	· 나는 내 걸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72		
	· 나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는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	.72		
	·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보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68		
	· 나는 내 걸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교하지 않는다.*	.66		
	· 나는 내 걸모습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56		
	신체 수치심	·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74		
·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73		
·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67		
·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몸무게를 알게 되면 창피할 것 같다.		.65		
통제 신념	·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75	13.30 (53.43)	.66
	·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6		
	· 내가 아무리 몸무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내 몸무게는 항상 비슷할 것이다.*	.60		
	· 나는 사람들의 외모는 타고난 것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55		

* 점수의 해석을 위해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문항임

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더블체크 방법에 의한 여러 번의 수정작업을 거쳐 제작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3. 5. 20~6. 20에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720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700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21.0)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χ^2 검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test,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1. 객체화 신체외모의식

객체화 신체외모의식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은 .84이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은 4467.62($p < .000$)으로 나타나, 객체화 신체외모의식에 대한 요인분석은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세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3.43%였다. 첫 번째 요인은 타인에게 나의 외모가 어떻게 보이

〈표 2〉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 의식

객체화 신체 의식 요인	피험자 특성	한국 여대생	중국 여대생	t
신체감시성		3.63	2.90	18.19***
신체수치심		3.00	2.76	4.09***
통제신념		3.96	3.56	8.84***

*** $p < .001$

는 지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체감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21.14%의 설명력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은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끼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체수치심’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18.99%의 설명력을 보였다. 세 번째 요인은 본인의 노력과 통제에 의해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통제신념’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13.30%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객체화 신체 의식의 구성차원이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하위 차원으로 제시된 선행연구(김완석 외, 2009; 임보형, 2009; McKinley & Hide, 1996) 결과를 지지한다.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 의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 요인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보다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F값을 고려해볼 때 신체감시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며 이상적인 신체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보다 자신이 이상적인 신체모습이 아닐 때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통제신념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보다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이 높다는 김완석 외(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여건, 즉, 중국에 비해 높은 외모지상주의 열풍, 자본주의

의 발달, 좁은 지리적 여건과 높은 인구밀도, IT infra의 발전에 따른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Lookism)란 외모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현상을 말하는데, 김완석과 김정식(2007)에 의하면, 한국 여대생들은 외모가 사회적 성취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믿는 경향이 매우 크며, 따라서 외모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중국보다 일찍 자본주의가 발달하였는데, 자본주의는 신체의 자본화를 촉진하므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객체화 신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완석, 2007). 따라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한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은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은 좁은 영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단주의 문화가 갖는 특징, 즉 타인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집단의 가치규범에 동조하려는 경향(Forbes & Jun, 2008)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IT infra를 갖추고 있으며 SNS의 영향력이 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김완석, 2007; Calogero et al., 2005; Harrison & Cantor, 1997)에 따르면, 여성 신체의 객체화는 주로 자본주의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한국 여대생들이 매스미디어에서 제시되는 외모지상주의 가치관과 획일화된 사회문화적 미적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하여 중국 여대생보다 객체화 신체 의식이 더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2. 외모관리행동

1) 외모관리행동의 수행경험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패션관리, 메이크업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로 구분하여 각 외모관리행동의 수행경험에 대한 교차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행의복, 기초 및 기능

성화장품,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나 팩 등의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과 보톡스, 필링,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의 외모관리행동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패션소품이나 액세서리를 통한 코디네이션, 색조화장품 사용, 전문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 방문, 헤어관리, 체중관리, 얼굴성형수술 등의 비교적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보다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표 3〉 외모관리행동 수행경험

외모관리행동 항목			한국 여대생 O(E)	중국 여대생 O(E)	χ^2
패션 관리	트렌드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 구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438(436.6) 6(7.4)	238(239.4) 5(3.6)	.87
	의복에 맞춰 패션소품(가방, 신발 등) 구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441(433.8) 3(10.2)	230(237.2) 12(4.8)	15.96***
	자신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목걸이, 반지 등) 구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425(416.3) 19(27.8)	210(218.8) 22(13.3)	9.11**
메이 크업 관리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등) 구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431(427.8) 13(16.2)	222(225.2) 11(7.8)	2.05
	색조화장품(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구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426(414.9) 18(29.1)	207(218.1) 25(13.9)	14.03***
	기능성화장품(주름, 미백, 보습, 탄력 등) 구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369(362.9) 75(81.1)	188(194.1) 45(38.9)	1.73
피부 관리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 또는 팩 구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398(399.1) 45(43.9)	213(211.9) 20(21.1)	.10
	피부관리를 위해 전문 피부관리실 또는 피부과 방문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60(148.5) 280(291.5)	71(82.5) 164(152.5)	4.13*
헤어 관리	헤어케어제품(트리트먼트, 앰플, 팩 등) 구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371(355.8) 72(87.2)	165(180.2) 67(51.8)	10.25***
	헤어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22(131.1) 319(309.9)	43(73.9) 192(161.1)	12.07***
체중 관리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수행	경험 있음 경험 없음	294(173.5) 148(168.5)	120(140.5) 111(90.5)	12.52***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수행	경험 있음 경험 없음	270(284.5) 171(156.5)	160(145.5) 70(84.5)	6.47**
성형 관리	외모관리를 위한 시술(보톡스, 필링 등)	경험 있음 경험 없음	21(16.9) 419(423.1)	10(14.1) 220(215.9)	3.16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 양악수술 등)	경험 있음 경험 없음	92(65.5) 349(375.5)	10(36.5) 222(195.5)	38.76***
	몸매 성형수술(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경험 있음 경험 없음	6(5.4) 432(432.2)	2(2.6) 227(226.8)	.48

* $p < .05$, ** $p < .01$, *** $p < .001$, O는 관측빈도, E는 기대빈도를 나타냄

〈표 4〉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

외모관리행동 항목		한국 여대생	중국 여대생	t
패션 관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 구입	4.82(.47)	4.09(.92)	12.31***
	의복에 맞춰 패션소품(가방, 신발 등) 구입	4.73(.57)	3.84(.98)	13.42***
	자신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목걸이, 반지 등) 구입	4.45(.92)	3.58(1.05)	10.19***
메이 크업 관리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등) 구입	4.42(.86)	3.80(1.01)	7.63***
	색조화장품(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구입	4.43(.93)	3.57(1.09)	9.89***
	기능성화장품(주름, 미백, 보습, 탄력 등) 구입	4.10(1.10)	3.51(1.11)	6.14***
피부 관리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 또는 팩 구입	4.10(1.07)	3.74(1.18)	3.75***
	피부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 또는 피부과 방문	4.24(1.07)	2.92(1.18)	14.01***
헤어 관리	헤어케어제품(트리트먼트, 앰플, 팩 등) 구입	4.01(1.12)	3.28(1.10)	7.59***
	헤어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	3.75(1.26)	2.95(1.18)	7.73***
체중 관리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수행	4.18(1.07)	3.20(1.19)	10.21***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수행	3.97(1.15)	3.36(1.15)	6.21***
성형 관리	외모관리를 위한 시술(보톡스, 필링 등)	3.13(1.38)	1.98(1.15)	10.70***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 양악수술 등)	3.00(1.44)	2.04(1.22)	8.45***
	몸매 성형수술(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2.74(1.47)	1.79(1.00)	8.71***

*** $p < .001$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대빈도와 관측 빈도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집단 간의 차이는 얼굴 성형수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한국 여대생들이 중국 여대생들에 비해 쌍꺼풀, 코, 양악수술 등의 얼굴 성형수술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대생은 건강보다는 외모에 몰두하며 독일이나 중국 여대생보다 성형수술 등의 극단적인 외모 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는 홍금희(2011)의 연구결과와,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외모관리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난 왕야와 김용숙(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는 패션관리, 메이크업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형관리를 제외한 5개의 외모

관리항목은 평균점수가 3.75~4.82로 중간 이상의 매우 높은 수행의도를 보였다. 성형관리에서도 지방흡입이나 가슴성형 등의 몸매 성형수술은 중간 이하의 점수(2.74)를 보였으나, 보톡스, 필링 등의 시술이나 얼굴성형수술은 3.00과 3.13으로 중간 또는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도 패션관리, 메이크업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형관리를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 항목은 대체적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성형관리(1.74~2.04)는 매우 낮은 수행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 외모관리행동 중 패션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 피부관리,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에 비해 모든 외모관리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행의도를 나타냈다. 또한 평균점수를 고려해볼 때, 중국 여대생들은 성형

관리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반면, 한국 여대생들은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외모관리방법 중에서 의복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이 메이크업으로 나타난 이주영(2012)과, 중국의 신세대 남녀는 의복관리행동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품,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척립(2004)의 연구결과, 그리고 한국 여대생들은 자신의 외모가 이상적인 외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각함으로써 성형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서란숙(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Nisbett(2003)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단서로 생각, 기질, 감정 등의 내적인 단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외모, 사회적 지위, 역할 등의 외적인 단서를 통해 개인을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종한 외(2007)는 한국 대학생들은 자기 인식의 단서로 외모, 학벌, 직업과

같은 외적 요인을 중시하고 특히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완석과 김정식(2007)도 한국 여대생이 중국이나 일본 여대생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윤성욱과 황경미(2006)는 한국 구매자들은 중국 구매자보다 매력적인 종업원에 대해 더 높은 구매의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 모두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선택받기 위해 외모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체제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적은 반면, 한국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이 취업, 결혼, 사회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유엔에

〈표 5〉 한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
패션관리	통제신념	.17	.17	3.24***	.06	11.69***
	신체감시성	.19	.17	3.08**		
메이크업관리	신체감시성	.33	.17	3.04**	.08	10.36***
	통제신념	.26	.15	2.86**		
	신체수치심	.15	.12	2.30**		
피부관리	신체수치심	.18	.15	2.70**	.07	9.61***
	통제신념	.26	.15	2.81**		
	신체감시성	.26	.13	2.42*		
헤어관리	신체감시성	.38	.17	3.17**	.07	9.93***
	신체수치심	.19	.13	2.48**		
	통제신념	.25	.13	2.35*		
체중관리	신체수치심	.44	.35	6.94***	.16	32.66***
	통제신념	.31	.17	3.46***		
성형관리	신체수치심	.42	.28	5.62***	.11	25.01***
	신체감시성	.36	.15	3.01**		
외모관리(전체)	신체수치심	.23	.27	5.06***	.16	20.20***
	신체감시성	.25	.18	3.30***		
	통제신념	.20	.16	2.99***		

* $p < .05$, ** $p < .01$, *** $p < .001$

서 실시한 남녀평등지수를 보면, 같은 유교문화권이지만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남녀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은 삼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욱연, 2016). 그러나 최근 중국은 급격한 자본주의적 변화와 함께 신체외모에 대한 가치관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김완석, 유연재, 2012) 외모관리행동의 수행의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해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 여대생 각각에 대해 객체화 신체이식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외모관리행동 항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한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패션관리에서는 통제신념과 신체감시성의 두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에서는 객체화 신체이식 세 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차이가 있어 메이크업관리에서는 신체감시성, 통제신념, 신체수치심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큰 반면, 피부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에 비해 신체감시성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고, 헤어관리에서는 신체감시성의 영향력이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수치심이 통제신념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성형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 요인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수치심이 신체감시성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객체화 신체이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객체화 신체이식은 한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객체화 신체이식 세 요인 모두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때, 신체수치심이 외모관리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전정혜, 유태순, 2011; Kretchmar, 2001; Noll & Fredrickson, 1998)와, 신체수치심이 신체감시성보다 외모관리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전현진과 정명선(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객체화 신체이식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안나영(2007)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통제신념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선행연구(임보형, 2007; 전현진, 정명선, 201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임보형(2007)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통제신념이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현진과 정명선(2011)은 외모관리행동 중 헤어와 체중행동만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외모관리행동 항목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객체화 신체이식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6〉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
패션관리	신체수치심	.37	.27	4.20***	.12	14.81***
	통제신념	.36	.23	3.59***		
메이크업관리	신체수치심	.44	.26	3.95***	.07	15.61***
	통제신념	.31	.18	2.66**		
피부관리	신체수치심	.40	.26	3.94***	.09	10.91***
	통제신념	.31	.18	2.66**		
헤어관리	신체수치심	.33	.21	3.04**	.04	9.27**
	통제신념	.31	.18	2.66**		
체중관리	신체수치심	.41	.26	3.89***	.08	9.84***
	통제신념	.29	.16	2.33*		
성형관리	신체감시성	.51	.25	3.72***	.13	17.48***
	신체수치심	.35	.21	3.11**		
외모관리(전체)	신체수치심	.41	.35	5.36***	.14	17.28***
	통제신념	.25	.18	2.71**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패션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 요인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수치심이 통제신념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메이크업과 헤어관리에서는 신체수치심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형관리에서는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 요인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체화 신체외식은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객체화 신체외식 요인 중 신체수치심은 중국 여대생의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신체감시성은 성형관리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객체화 신체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비교분석

한국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객체화 신체외식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패션, 메이크업, 피부, 헤어, 체

중, 성형관리 등의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객체화 신체외식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 한국 여대생의 경우는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 세 요인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 여대생의 경우는 신체수치심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신체감시성은 성형관리를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외모에 따른 사회적 차별로 인한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이 만연하여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좁은 지리적 여건과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집단규범과 동조성을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획일화된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이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유사한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중국은 오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평등을 중시하던 사회적 배경이 아직 남아있어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한국보다 적고, 넓은 영토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덜 획일화된 미적기준을 지니고 사회적 압력 또한 상대적

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미적기준과 비교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향이 적어 신체감시성이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 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두 소비자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체화 신체 의식의 구성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의 세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보다 객체화 신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체감시성이 높게 제시되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과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에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패션소품이나 액세서리를 통한 패션관리, 색조화장품의 사용, 전문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 방문, 헤어관리, 체중관리, 얼굴성형수술 등의 비교적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에서는 한국 여대생이 중국 여대생에 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으며, 앞으로의 수행의도 또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객체화 신체 의식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 모두에서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의 경우는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통제신념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 여대생의 경우 신체수치심과 통제신념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신체감시성은 성형관리를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보다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미적기준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

의 신체외모가 미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수치심을 많이 느끼며, 자신의 통제에 의해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 여대생들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며, 앞으로의 수행의도 또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등 외모관리행동에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의 발달, 획일화된 집단규범과 높은 동조성 등의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한국 여대생들이 지나치게 외모에 몰두하고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정보원천인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작할 때 획일화된 미적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신체외모에 대한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여대생들의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은 중간 이하인 반면 통제신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여대생들은 한국 여대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미적 기준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감시하며 자신의 신체에 수치심을 갖는 경향이 적어 비교적 긍정적인 신체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나 통제에 의해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여대생들의 외모관리행동 수행 정도는 아직 유행의복이나 기초화장품 사용 등과 같은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에 머물러 있으나, 패션, 메이크업, 피부, 헤어, 체중관리 등의 외모관리 수행의도는 중간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신세대들은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의 외모관련 산업은 다양한 외모관리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객체화 신체 의식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체 수치심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객체화 신체의식의 세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두 나라 소비자 간에 차이를 보여 신체수치심과 통제 신념은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신체감시성은 한국 여대생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여대생들이 중국 여대생보다 신체감시성이 특히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한 집단주의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소비자가 갖는 객체화 신체 의식과 외모 관리행동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현지 시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들에게 중국 소비자의 특징과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하고 한국 소비자와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기획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때에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대생만을 조사하였으므로 보다 연령층을 다양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남성의 외모관련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중국 본토의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태도와 구체적인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

풍과 함께 한국의 패션 및 뷰티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 김완석, 유연재. (2012). 한국 대학생의 신체이미지: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301-327.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 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김완석, 박은아, Takemoto, T. (2009). 객체화 신체 의식과 신체존중감, 자기해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23-46.
-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 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13-134.
- 김윤. (2007).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 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현. (2010).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모 관리행동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란숙. (2012).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외모의 중요성이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미용학회지*, 18(1), 180-186.
- 안나영.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야, 김용숙. (2007). 중국 여대생의 외모관리 특성과 의복구매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45-157.
- 어느새 10조원...K뷰티 열풍, 화장발이 아니었다. (2016. 6. 9).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7. 1. 9.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9/20160609_00356.html.
- 윤성욱, 황경미. (2006). 종업원의 매력성과 성별의

- 상호작용 효과: 한국, 중국, 일본 비교 연구. *경영교육논총*, 42, 295-315.
- 이경숙. (2007). *성인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추구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연. (2016). *이만큼 가까운 중국*. 경기도: 창비출판사.
- 이중환, 박은아, 김은희. (2007). 행복의 조건에 대한 내·외요인 중요도와 자기존중감 및 낙관주의 관계: 초, 중, 대학생의 비교.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0.
- 이주영. (2012). 여대생의 외모만족과 BMI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8(3), 651-660.
- 이주영. (2011). 여대생의 체중 조절행동과 신체 태도 및 비만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7(3), 461-467.
- 임보형. (2009).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이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란, 이명희.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6), 71-83.
- 전현진, 정명선. (2011). 객체화된 신체이식과 신체 존중감이 체중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9(6), 1272-1287.
- 전정혜, 유태순. (2011). 공격자기의식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객체화된 신체이식이 이미지 관리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 *한국의류학회지*, 35(11), 1333-1345.
- 조혜란, 최종명. (2007). 대학생의 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향상행동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825-835.
- 척립. (2004). *중국 신세대 남녀의 외모관리행동 분석*.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금희. (2011). 여대생의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 중국과 독일의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4), 523-530.
- 홍금희. (2010). 공격 자기이식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이상적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10), 1731-1741.
- China's Cosmetics Market 2015. (2016. 9. 28.).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6. 10. 7. 자료출처, http://168.188.11.31/3f57cf4/Lib_Proxy_Ur/www.samsungdesign.net/ChinaInfo/IssueReport/content.asp?an=40279&glChk=G&block=0&page=1&cnt=9.
- KOTRA. (2016. 12).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중국. KOTRA 심층보고서. 자료검색일. 2017. 1. 10. 자료출처,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
- P형 소비자, 가치와 이슈를 쫓는 소비 트렌드. (2014. 11. 24).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6. 10. 7. 자료출처, http://168.188.11.31/3f57cf4/Lib_Proxy_Ur/www.samsungdesign.net/Fashion/Report.
- 20대 소비기준은 오로지 '내 만족'. (2017. 2. 8).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자료검색일 2017 2. 20. 자료출처, <https://20slab.naeilshot.co.kr/archives/18918>.
-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 (2016.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검색일. 2017. 1. 10. 자료출처,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us/tstatus/forstatus/board/view.kto?id=426627&isNotice=false&instanceId=295&num=1>.
- 2016 China Fashion Market. (2016. 7. 22).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6. 10. 7. 자료출처, http://168.188.11.31/3f57cf4/Lib_Proxy_Ur/www.samsungdesign.net/ChinaInfo/IssueReport/List.asp?An=40251&glChk=G&block=0&page=1&cnt=9.
- 2016 China Consumer Trend. (2016. 7. 22).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6. 10. 7. 자료출처, http://168.188.11.31/3f57cf4/Lib_Proxy_Ur/www.samsungdesign.net/ChinaInfo/IndustryWatch/Consumer/content.asp?an=40252&glChk=G&block=0&page=1&cnt=9.
- Calogero, R. M, Davis, W. N., & Thompson, J. K. (2005).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Sex Roles*, 53(1-2), 43-50.
- Forbes, G. B., & Jung, J. (2008). Measures based on sociocultural theory and feminist theory as predictors of multidimensional measures of body dis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U. S.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1), 70-103.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Harrison, K., & Cantor, J.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exposure and eating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47, 40-67.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 Kretchmar, J. L. (2001).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college-age women of varying physical activity leve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North Carolina.
- McConnell, C. A. (2001). *An object to herself: the relationship between girls and their bod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McKinley, N. M., & Hi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s think differently... and why*. (최인철 역). 김영사.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623-636.
- Sinclair, S. L. (2006). Object lesson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1), 48-68.